

노인학습자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관계: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의 매개효과*

이 승 영¹⁾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강사·동료지지, 가족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그리고 삶의 질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학습자 35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강사·동료지지, 가족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 AMOS 2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동료지지는 학습동기, 학습참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족지지는 학습성과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습동기는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습참여는 학습성과에, 학습성과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다중매개 하였다. 가족지지는 학습성과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며, 강사·동료지지는 학습참여와 학습성과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를 통해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학습자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인 가족지지뿐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강사 및 동료지지를 통해서도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노인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지지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노인학습자, 사회적지지, 삶의 질,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 본 연구는 제1저자인 이승영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확장한 것임.

1)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choi0122@hnu.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일정 부분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위기와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온 경향이 있다(한정란, 2015). 정체나 퇴보의 시기라고 여기는 노년기도 부정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신체적·심리적으로 적응하여 보완해 나간다면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이 사회의 주도적인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을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나 수혜자로 취급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세대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김진한, 2007)과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제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생애발달론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과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어(조해경, 2002), 점차 노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최일선, 2019).

삶의 질은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경제적 영역, 환경적 영역에서의 객관적 측면뿐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으로써의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순, 2015).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

별이나 연령, 교육수준과 종교 등의 인구사회적 변인군과 건강상태 등의 신체생리 변인군, 자아존중감과 우울 등의 심리 변인군, 친구 및 이웃지지, 사회제도적 지지 등의 사회환경 변인군으로 구분하고 있다(신경인, 2009; 신성일, 김영희, 2013; 최화강, 2012). 특히 노년기는 신체적·심리적 건강 약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가 축소하므로(권중돈, 2016)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지지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해진다(김양이, 이연숙, 2017; Ekwall, Sivberg, & Hallberg, 2005).

사회적지지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개인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고 있다(이원숙, 1992).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인의 상실 경험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심리, 사회적 적응을 높이는 완충적 역할을 하기도 하며(한지영, 2019),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더 활동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노년기를 유지할 수 있다(권중돈, 2016). 사회적지지는 실제로 제공받는 지지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기능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Wethington & Kessler, 1986), 이런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지지제공자와 지지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지지제공자는 비공식적인 부문과 공식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부문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자연 발생적인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이며, 공식적인 부문은 공적이고 구조화된 집단이나 사회기관, 전문가

등과 같이 인위적인 네트워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지이다(이경남, 1995). 또한 상황에 따라 지지제공자의 지지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지지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지지제공자를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Gottlieb, 1983).

다음으로, 지지내용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애정이나 존경,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정서적지지와 충고,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그리고 인정, 가치, 의사존중 등의 평가적지지, 마지막으로 돈이나 물건, 시간 등의 제공 등을 통한 물질적지지로 구분하고 있다(박지원, 1985).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지지제공자는 공식적 지지보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의존성과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남, 1995; 이경란, 박지혜, 2021).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 지지원은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알려져 있으며(김미령, 2012) 일부 선행연구(김정식, 김익기, 2000)에서는 자녀에 의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의 출가, 배우자와의 사별로 가족의 교류나 규모가 작아지면서 노년기에는 가족지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김양이, 이연숙, 2017)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약화와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한 사회적 관계 축소로 개인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지지도 감소할 것이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노인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전문가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양이, 이연숙,

2017), 노인의 욕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호, 201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은 제한된 사회적지지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노년기 삶에 있어서 중요하므로(권중돈, 2016; 이경란, 박지혜, 2021), 비공식적 지지의 축소를 꾀게 되는 노인들에게 공식적 지지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제공을 공식적 지지와 비공식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비공식적 지지는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지를, 공식적 지지는 교육기관의 강사와 학습을 함께 수행하는 학습동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로 구분하였다.

더욱이 노년기 삶의 질에서는 건강 상태가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삶의 만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Hyde, Wiggins, Higgs, & Blane, 2003; Ryff, 1989). 또한 이러한 인간의 제 기능에 대한 연속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적 대응이 중요한데(기영화, 2005; 김진한, 2007; 신미식, 2014; Lamdin & Fugate, 1998),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 사회적 역할을 전 생애에 걸쳐 수행하려는 동기로 교육을 받고자 하며(Knowles, 1980), 노인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학습활동은 노인들이 자신 삶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한다(홍기형, 나향진, 2001). 즉 노인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과업을 수행하여 인생의 변화에 대응하고, 삶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한정란, 2001),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년층을 사회적 약자나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김진한, 2007; 원영희, 한정란, 2012).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1.2%로, OECD 평균 50%(외교부, 2018)보다 8.8% 낮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노인과 성인 간의 평생교육 참여 격차율도 2017년 14.9%에서 2018년 19.3%로 심화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우리나라 노년층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모든 연령층 중에서 학교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세대로서(원영희, 한정란, 2012), 부족했던 학교교육은 이후의 평생교육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데도 노인의 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노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이부일, 기영화, 2009) 기인한 것으로, 관련 정책의 부재와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교육이 노인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한 채 그들을 동일집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전제아, 김원경, 2014), 복지적 차원으로만 접근하여 노인들의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달래주는 수준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신미식, 2014). 노인교육 관련 연구(유혜엽, 기영화, 2008; 최일선, 2019)에서도 노인

교육의 기초적인 이해와 접근방식을 제시하거나, 참여 경험의 사례연구 위주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교육은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제한적 접근이 두드러졌다(은화연, 2010). 더욱이 최근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경험을 가진 건강한 신노인세대는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욕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신용주, 김혜수, 2015). 따라서 교육에서 소외받은 노년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신노년층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파악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촉진하게 하는 연구가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지지와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Vaux(1988)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소속감, 자율성과 통제력, 주제적 역할 등을 매커니즘으로 그들의 삶에 안녕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으로 강현권의 연구(2015)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지지는 학습동기와 학습만족을 향상하게 하여 체계적인 학습성과를 가져오게 하며, 자아실현과 심리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 경우에도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적응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지능이나 적성과 같은 인지적 요인 외에 태도, 가치, 동기 같은 비인지적 요인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장암미, 안도희, 2013; Lee & Stankov, 2013), 그 중에서도 학습동기가 주요한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신미정, 정철화, 우희정, 2020). 학습동기는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학습에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데(현종철, 김은경, 2010), 청소년이나 대학생과는 달리 성인학습자의 경우 자율적 의지로 학습에 참여하므로(Knowles, 1990), 성인이나 노인학습자의 경우 학교 교육에서 학습동기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학습자는 자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우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 생활 중심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므로(이부일, 기영화, 2009), 노인학습자의 배경적 특성이나 경험, 상황에 따라 학습동기는 상이한 유형으로 표출된다(이향란, 2012). 이러한 맥락에서 Houle(1961)은 다양한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면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목표지향성 학습동기, 활동지향성 학습동기, 학습지향성 학습동기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사회적지지를 다룬 국내 연구(고화숙, 1999; 박재희, 2018)에서는 가족, 교수, 학습동료 등의 지지가 개인의 학습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길자의 연구(2003)에서는, 464명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의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328명(70.7%)이 ‘친구의 소개와 권유’라고 대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부일, 기영화, 2009)에서도 친구들의 정보적지지가 학습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정보 지원을 받게 되어 자연스럽게 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동

기는 학습을 촉진하여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영미, 한상훈, 2012; 변주성, 2009), 학습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Hopstock, 2008). 우선 가족지지(석임복, 2007)와 교사지지(Weyns, Colpin, Laet, Engels, & Verschueren, 2018)가 높을수록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족과 또래, 교사지지가 학생들의 학업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Gutierrez, Tomas, Romero, & Barrica, 2017). 또한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도 가족, 교수진, 교육담당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한영미, 기영화, 2007), 학습동료의 지지가 노인의 학습참여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희, 2018).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태종, 전주성, 2015; 이경란, 박지혜, 2021)에서도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노인이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특정한 활동에 깊이 빠져들어 가는 상태로(이기택, 2001), 외부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게 되면서(김진호, 2003), 참여강좌 수나 학습시간, 학습비용 등과 관련된 참여수준이 점차 올라가게 된다. 또한 김애련 연구(2004)에서는 참여학과와 참여강좌 수가 많아질수록 전 영역에서 학습성도가 높아졌으며, 참여학과와 강좌 수, 학습 시간이라는 참여수준과 학습몰입을 학습참여도라고 한 연구(변주성, 2009; 임숙경, 조용하, 2008)에서도 학습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습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참여도는 학습성도를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김영미, 한상훈, 2012;

신은정, 2012).

학습성과는 학습 참여 지속의 결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더 큰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이며(Beder, 1999)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교육의 주요 관심사였다(최운실, 2005). 하지만 학위나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성과와는 달리 성인 이후 학습자가 기대하거나 실제 성취하는 학습성과는 스스로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변화에 기인하므로 자기평가가 중요하다(Jarvis, 1985). 학습 성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개인을 통해 실현된 사회적 자본과 학습성과를 함께 측정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성과도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의 학습성과는 지식과 기술 등의 인지적 성과와 가치관, 태도와 자아개념 등의 정의적 성과, 체력증진과 건강유지 등의 신체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김애련, 2004; 남기영, 2016), 사회적 차원의 학습성과는 사회 평등 실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경제발전, 정치발전, 사회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최운실, 2005). 이와 같이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성과는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수준은 삶의 질의 인식수준과 관련이 높게 나타난다. 김은영의 연구(2015)에서는 평생학습기관 여성학습자들의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삶의 질 인식도 높았고,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하위변인으로 한 학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안은미, 허정무, 2015).

한편, 사회적지지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우선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밀접한 정적 관련이 있었으나(Ahmed, Minnaert, van der Werf, & Kuyper, 2010), 초등학교 5~6 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조한익, 2010),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성, 2011). 더군다나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는 학습성과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7)에서는 2017년부터 65세에서 79세까지 고령학습자의 학습성과를 포함하고 있어 노인학습자들 학습성과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교육의 양적·질적 향상과 노인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사회적지지는 노인학습자의 비공식적 지지를 가족지지로, 공식적 지지를 교육기관의 강사·동료지지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사회적지지(강사동료지지, 가족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삶의 질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단일모형 평가방법과 경쟁모형 평가방법이 있다. 단일모형 평가방법은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경우에는 더 나은 대안 모형의 선택 가능성이 없고, 적합도가 좋지 않으면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정된 모형을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모형 평가방법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모형 평가방법이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I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강사·동료지지, 가족지지)가 학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최명규, 성소연, 2012)를 토대로 사회적지지와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설정하였다. 다음 연구모형 II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학습성과 간에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준성, 2011; 조한익, 2010)에서는 사회적지지와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와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공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학습자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 99명(28.0%), 여자 255명(72.0%)이며, 연령별로는 60세에서 65세가 124명(35.0%), 66세에서 70세는 132명(37.3%), 71세 이상은 98명(27.7%)이었다. 동거가족 여부를 살펴보면, 혼자가 49명(13.8%), 배우자와 함께 147명(41.5%), 자녀와 함께 35명(9.9%), 배우자와 자녀 모두와 함께 111명(31.4%), 기타 12명(3.4%)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31명(8.8%), 중학교 졸업 35명(9.9%), 고등학교 졸업 101명(28.5%), 대학교 이상 187명(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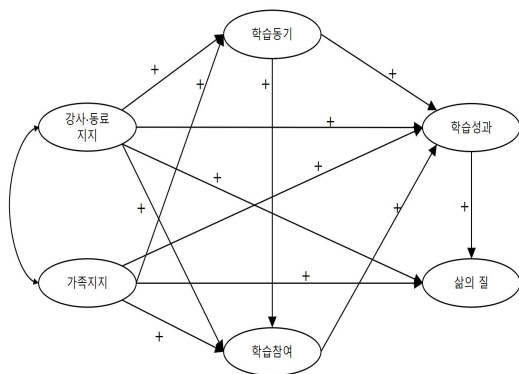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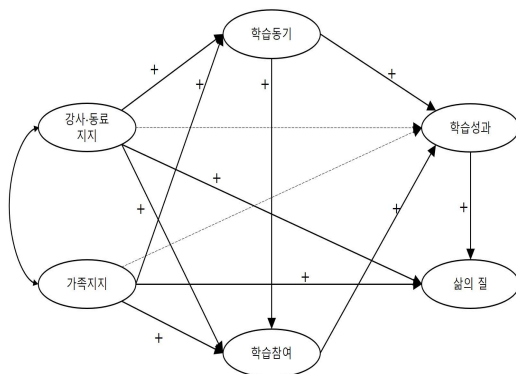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II

이었다. 참여강좌 분류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문해교육 참여는 22명(6.2%), 직업능력교육은 65명(18.4%), 인문교양교육은 70명(19.8%),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은 155명(43.8%), 시민교육은 42명(11.9%)이었다.

2. 측정도구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지각하는 기능적 측면을 지지제공자와 지지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지제공자는 비공식적 부문은 가족지지로, 공식적인 부문은 교육기관의 강사·동료지지로 구분하였고, 내용적인 측면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연구(유은경, 설현수, 2015)의 척도를 노인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정서적지지(예: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정보적지지(예: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평가적지지(예: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 도구적지지(예: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사·동료지지. 강사·동료지지는 노인이 학습에 참여하면서 강사 및 학습 동료로부터 지각하는 지지를 의미하며, 요인분석에서 요

인부하량이 .4 이하인 정보적지지 문항 1개를 삭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정서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3문항, 도구적지지 3문항, 정보적지지 3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정서적지지가 .90, 평가적지지가 .87, 도구적지지가 .85, 정보적지지가 .84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노인학습자의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로 정서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4문항, 도구적지지 3문항, 평가적지지 3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정서적지지가 .90, 평가적지지가 .88, 도구적지지가 .87, 정보적지지가 .86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삶의 질은 Ryff(1989)가 환경통제,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수용 총 6개의 하위영역으로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Hyde 등(2003)이 환경통제, 자율성, 자아실현, 즐거움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개발한 노인의 삶의 질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통제, 자율성, 자아실현, 즐거움 총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환경통제는 (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3문항, 자율성 (예: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내 의지대로 하는 편이다’) 4문항, 자아실현(예: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노력한다’) 4문항, 즐거움(예: ‘나는 요즘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4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5, 즐거움은 .84, 자아실현은 .75, 자율성은 .67 환경통제는 .66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Boshier(1971), Houle(1961), 최운실(1986)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선영의 연구(2013)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목적지향적동기 (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에 참여한다’) 5문항, 활동지향적동기 (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학습에 참여한다’) 5문항, 학습지향적동기 (예: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학습에 참여한다’)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84이며, 활동지향적동기는 .80, 목적지향적동기는 .76, 학습지향적동기는 .72로 나타났다.

학습참여

학습참여와 관련해서는 변주성(2009)과 임숙경, 조용하(200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외적요인을 참여수준으로, 내적요인을 학습몰입으로 구분하였다. 참여수준은 김애련의 연구(2004)를 바탕으로 참여강좌 수, 학습시간, 학습비용을 묻는 3문항으로, 학습몰입은 김진호(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 한 Jackson과 Marsh(1996)의 몰입상태척도(Flow State Scale: FSS)를 임숙경과 조용하의 연구(2008)에서 5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86이며, 학습몰입은 .89, 참여수준은 .82로 나타났다.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김애련(2004)의 분류(지적영역, 정의적영역, 신체적영역, 가정생활영역, 진로와 취업영역, 사회활동영역) 중에서 남기영(2016)이 4가지의 영역을 채택해서 타당화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인지적영역은 (예: ‘학습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5문항, 정의적영역은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인정받게 되었다’) 5문항, 신체적영역은 (예: ‘학습에 참여하면서 체력이 좋아졌다’) 3문항, 사회적영역은 (예: ‘나의 사회활동(취미, 배움, 모임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4문항으로 총 17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93이고, 인지적영역은 .89, 정의적영역은 .86, 신체적영역은 .79, 사회적영역은 .7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0-02-17-0825)을 받은 후,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학습자 10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대상기관을 섭외하였으나, 코로나(COVID-19)의 장기화로 전국 공공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수강인원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면 설문과 비대면 설문을 병행하게 되었다. 대면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직접 설문을 진행하였고, 참여자 중 고령이거나 시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직접 문항을 읽어 드리면서 진행하였다. 비대면의 경우 기관담당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설문 참여시간 등을 사전에 문자로 공지하고 참여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설문 내용을 발송하여 취합하였다. 모든 문항은 답변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면 137부, 비대면 217부로서 총 354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WIN Version 21.0, AMOS Version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요인의 수를 산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각 변인 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인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5가지 잠재변수들이 각각 측정변수를 제대로 나타내는지 평가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도출된 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과 팬텀변수(Phantom model) 설정을 통해 총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확률을 계산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적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삶의 질 간의 직접적 관계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서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측정변수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사·동료지지는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삶의 질과 $p < .01$ 수준에서 모든 하위변인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학습참여, 학습성과, 삶의 질과 $p < .01$,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습동기는 학습성과, 학습참여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습참여는 학습성과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 (N = 35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정서적지지																					
강사																					
동료	.71**																				
지지	.75**	.73**																			
(4)도구적지지	.74**	.67**	.74**																		
(5)정서적지지	.48**	.48**	.46**	.42**																	
가족																					
지지	.46**	.52**	.55**	.48**	.73**																
(7)평가적지지	.46**	.53**	.56**	.45**	.74**	.70**															
(8)도구적지지	.33**	.46**	.45**	.42**	.65**	.67**	.72**														
(9)환경통제	.18**	.23**	.29**	.15**	.26**	.22**	.34**	.24**													
(10)자율성	.24**	.25**	.25**	.22**	.23**	.19**	.24**	.12**	.44**												
삶의																					
질	.38**	.38**	.42**	.35**	.37**	.35**	.43**	.33**	.37**	.31**											
(12)즐거움	.47**	.43**	.44**	.44**	.42**	.39**	.48**	.36**	.34**	.31**	.60**										
(13)목적지향적	.17**	.17**	.26**	.16**	.11**	.11**	.18**	.18**	.03**	-.10**	.18**	.18**									
학습																					
동기	.27**	.20**	.26**	.33**	.09**	.13**	.09**	.12**	-.20**	-.06**	.07**	.229**	.29**								
(15)학습지향적	.21**	.21**	.23**	.27**	.18**	.21**	.19**	.15**	.14**	.08**	.26**	.35**	.28**	.34**							
학습																					
참여	.24**	.20**	.25**	.25**	.13**	.16**	.20**	.18**	.07**	.05**	.27**	.26**	.27**	.20**	.21**						
(17)학습몰입	.35**	.35**	.41**	.34**	.32**	.26**	.34**	.26**	.25**	.21**	.36**	.36**	.16**	.20**	.30**	.39**					
(18)인지적영역	.41**	.41**	.47**	.38**	.36**	.35**	.51**	.39**	.34**	.16**	.42**	.46**	.31**	.22**	.35**	.322**	.48**				
학습																					
성과	.45**	.43**	.54**	.43**	.43**	.45**	.53**	.41**	.35**	.28**	.469**	.50**	.32**	.31**	.44**	.34**	.47**	.73**			
(20)신체적영역	.47**	.42**	.51**	.42**	.32**	.39**	.46**	.38**	.25**	.17**	.40**	.50**	.30**	.33**	.35**	.32**	.44**	.58**	.67**		
(21)사회적영역	.37**	.35**	.43**	.36**	.29**	.30**	.36**	.31**	.21**	.10**	.39**	.47**	.44**	.37**	.36**	.42**	.43**	.50**	.56**	.56**	
평균	3.71	3.86	3.84	3.60	3.90	3.76	3.92	3.82	3.28	3.22	3.74	3.34	3.78	3.82	3.83	3.69	3.55	3.66	3.631	3.72	3.67
표준편차	.66	.67	.70	.77	.68	.68	.73	.79	.83	.76	.66	.76	.65	.62	.61	.67	.73	.74	.66	.63	.68
왜도	-.42	-.70	-.42	-.54	-.50	-.24	-.36	-.43	-.19	-.15	-.22	.10	-.22	-.67	-.55	-.29	-.43	-.11	.20	-.30	-.30
첨도	.72	1.53	.85	.72	.66	-.06	.00	-.04	-.27	-.39	.09	-.38	-.05	1.62	.65	.60	.20	-.69	-.60	.12	-.08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 df / p$	TLI	CFI	RMSEA	RMSEA(90)	
					LO	HI
측정모형	419.66/173/000	.92	.94	.07	.06	.07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 = 354)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β	t
강사·동료 지지	평가적지지	1.00	-	.86***	-
	정보적지지	1.09	.05	.89***	21.91
	도구적지지	.98	.05	.82***	19.36
	정서적지지	1.14	.06	.83***	19.76
가족지지	평가적지지	1.00	-	.84***	-
	정보적지지	.98	.05	.83***	18.76
	도구적지지	1.12	.06	.88***	20.53
	정서적지지	1.09	.06	.79***	17.55
삶의 질	자율성	1.00	-	.51***	-
	환경통제	.75	.12	.43***	6.24
	자아실현	1.24	.14	.74***	8.60
	즐거움	1.42	.16	.78***	8.76
학습동기	학습지향적	1.00	-	.64***	-
	목적지향적	.94	.12	.61***	8.06
	활동지향적	.87	.11	.60***	7.98
학습참여	학습몰입	1.00	-	.53***	-
	참여수준	1.26	.21	.74***	6.09
학습성과	신체적영역	1.00	-	.73***	-
	인지적영역	1.12	.06	.84***	17.96
	사회적영역	1.16	.09	.78***	13.73
	정의적영역	1.12	.09	.70***	12.34

*** $p < .001$.

었다. 학습성과는 하위변인인 사회적영역과 삶의 질의 자율성을 제외하고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규성을 만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왜도는 절대값 기준 최소 .10에서 최대 .70이고, 첨도는 절대값 기준 최소 .00에서 최대 1.53로 나타나 연구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값이 적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배병렬, 2017). 다른 적합도 지수로 TLI, CFI, RMSEA를 추천하고 있으며(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LI = .92, CFI = .94, RMSEA = .07(90% 신뢰구간 : .06 ~ .07)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면 표 3과 같이 각 잠재변수에 대해 모든 측정변수들

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43 ~ .89로 요인부하량의 충족조건이 .3 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Cohen, 1988),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표 4에서와 같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인 간의 AVE(평균분산추출)값과 CR(개념신뢰도)값을 이용하였으며, AVE값이 .50, CR값이 .70이상 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배병렬, 2017) 모든 변수들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는 AVE 제곱근의 최솟값이 두 구성변수 간 상관계수의 최댓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노경섭, 2015; 배병렬, 2017) 모든 변수들은 판별타당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잠재변수	판별타당도						집중타당도	
	(1)	(2)	(3)	(4)	(5)	(6)	평균분산추출 (AVE)	개념신뢰도 (CR)
(1) 강사·동료지지	.92						.84	.96
(2) 가족지지	.66**	.91					.82	.95
(3) 삶의 질	.63**	.62**	.77				.59	.85
(4) 학습동기	.41**	.27**	.36**	.75			.56	.79
(5) 학습참여	.45**	.34**	.54**	.40*	.77		.58	.73
(6) 학습성과	.65**	.61**	.74**	.66**	.61**	.87	.76	.93

* $p < .05$. ** $p < .01$.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chi^2/df/p$	CMIN/DF	TLI	CFI	RMSEA	RMSEA(90)	
						LO	HI
연구모형 I (최종모형)	452.78/176/000	2.57	.92	.93	.07	.06	.07
연구모형 II	459.01/178/000	2.58	.92	.93	.07	.06	.07
Δ	6.24* ($df = 2$)						

* $p < .05$.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I 은 사회적지지인 강사·동료지지와 가족지지와 학습성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한 모형이고, 연구모형 II는 강사·동료지지와 가족지지와 학습성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측한 모형이다.

연구모형 I 과 연구모형 II는 위계모델로써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즉 $\Delta\chi^2$ 는 단순한 모형(연구모형 II)의 χ^2 에서 복잡한 모형(연구모형 I)의 χ^2 차이이며, Δdf 는 단순한 모델(연구모형 II)의 자유도에서 복잡한 모델(연구모형 I)의 자유도를 뺀 것으로 희생한 자유도(Δdf)에 비해 χ^2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배병렬, 2017). 표 5에서와 같이 연구모형 I 과 연구모형 II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두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으나, $df = 2$ 가 변화함에 따라 $\Delta\chi^2$ 은 6.24($p < .05$)로써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적합한 연구모형 I 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여(배병렬, 2017)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와 분석 결

과는 표 6과 그림 3과 같다. 표준화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 이하면 효과의 크기가 작다고 해석하고 .3 정도의 크기는 효과가 보통이라고 해석하며, .5 이상이 되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최종모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사·동료지지와 가족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파, 삶의 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동료지지는 학습동기($\beta = .41, p < .001$)와 학습참여($\beta = .46, p < .01$)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성파와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지지는 학습성파($\beta = .29, p < .01$)와 삶의 질($\beta = .19, p < .01$)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동기와 학습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학습동기는 학습참여($\beta = .34, p < .01$), 학습성파($\beta = .26, p < .05$)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참여는 학습성파($\beta = .73,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성파는 삶의 질($\beta = .53, p < .001$)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N = 354)

기준변수	예측변수	B	S.E.	β
학습동기	강사·동료지지	.33	.08	.41***
	가족지지	-.01	.07	-.00
학습참여	강사·동료지지	.23	.07	.46**
	가족지지	.03	.06	.06
	학습동기	.22	.08	.34**
학습성과	강사·동료지지	-.08	.09	-.09
	가족지지	.23	.07	.29**
	학습동기	.26	.11	.26*
	학습참여	1.15	.25	.73***
삶의 질	강사·동료지지	.09	.05	.15
	가족지지	.12	.05	.19**
	학습성과	.42	.0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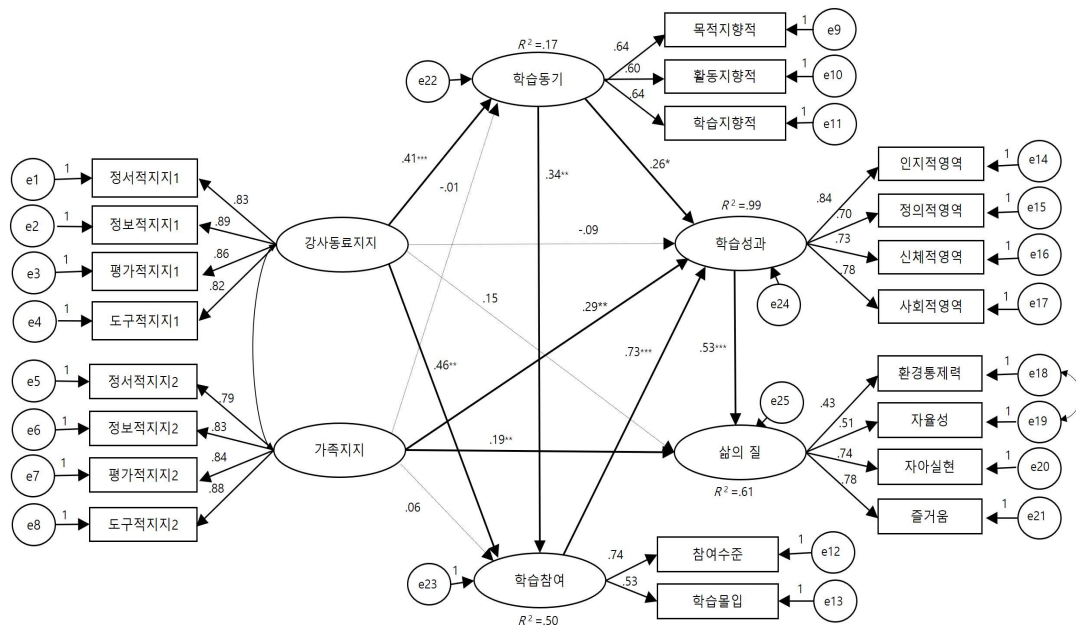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경로
---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3. 최종모형(연구모형 I)의 표준화 회귀계수

2.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학습 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의 매개효과

최종모형에서 강사·동료지지와 가족지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변인들이 어떤 경로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개별경로에 대한 특정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할 수 있다(배병렬, 2017). 팬텀변수는 일종의 가상변수로서 분산은 0으로 고정하고 요인부하량에 측정하고자 하는 간접효과를 고정하여 생성시키므로 팬텀변수를 추가하여도 변수의 모수들이 모두 고정되어서 모델 적합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Loehlin, 2004). 팬텀변수를 통한 모형변환 절차 후에 간접효과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하였다. 구조모형에서 강사·동료지지와 가족지지를 기점으로 해당 경로와 연계된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Bootstrapping 표집은 2,000회를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을 사용하였고 95%의 신뢰수준에서 개별 간접효과와 유의확률을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강사·동료지지는 학습관련변인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1$). 개별 매개효과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동료지지 → 학습성과 → 삶의 질의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사·동료지지 → 학습동기 → 학습성과 → 삶의 질 경로에서는 매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사·동료지지 → 학습참여 → 학습성과 → 삶의

표 7.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와 전체효과

(N = 354)

종속 변수	매개변수	독립 변수	매개효과						전체효과 (직접+매개)		
			개별			전체					
			B	S.E.	β	B	S.E.	β	B	S.E.	β
삶의 질	학습성과	강사 · 동료 지지	-.03	.08	-.05						
	학습성과 ← 학습동기		.04	.07	.06						
	학습성과 ← 학습참여		.11**	.09	.18	.15**	.06	.24**	.25**	.05	.39**
	학습성과 ← 학습성과		.04*	.06	.06						
	학습성과	가족 지지	.10**	.05	.15						
	학습성과 ← 학습동기		-.01	.02	-.00						
	학습성과 ← 학습참여		.01	.05	.02	.11**	.05	.17**	.23**	.06	.37**
	학습성과 ← 학습성과		.00	.02	-.00						

* $p < .05$. ** $p < .01$.

질의 매개 경로는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B = .11, p < .05$). 넷째, 강사·동료지지 → 학습동기 → 학습참여 → 학습성과 → 삶의 질의 경로는 유의한 매개 경로로 나타났다($B = .04, p < .01$).

다음으로 가족지지는 학습관련 변인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17, p < .01$),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 → 학습성과 → 삶의 질의 매개 경로는 유의한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B = .10, p < .01$). 둘째, 가족지지 → 학습동기 → 학습성과 → 삶의 질 경로에서는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지지 → 학습참여 → 학습성과 → 삶의 질의 매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가족지지 → 학습동기 → 학습참여 → 학습성과 → 삶의 질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지지(강사·동료지지, 가족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사·동료지지와 가족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

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동기에 있어서는 강사·동료지지가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가족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은 친구지지가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길자, 2003; 이부일, 기영화, 2009)와도 맥을 같이하며, 풍부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삶일수록 학습에 참여할 기회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학습동기는 가족지지보다 강사·동료지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강사와 동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학습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습기관의 홍보뿐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는 기(既)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학습 관련 정보 제공과 학습 참여 권유가 중요함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학습참여에 있어서도 강사·동료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가족지지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성인 이후의 학습자들은 학습기관의 강사 및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교수들의 더 많은 지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Kasworm, 1995)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노인학습자의 참여강화 수나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태종, 전주성, 2015; 이경란, 박지혜, 2021)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지지를 제공자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학습자가 학습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이후에 학습환경에 적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학습 현장에서 강사 및 동료가 노인학습자들을 격려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자신감이나 흥미, 즐거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강사나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습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성과에는 가족지지가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사·동료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학습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청소년이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소연희, 2008; 최명구, 성소연, 2012)에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제공자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들의 학습성과는 인지적영역인 학업성취만을 다루고 있으나 노인학습자의 학습성과는 인지적영역뿐 아니라 자아개념 등의 정의적영역과 삶의 활력 등의 신체적영역과 사회참여의 확대라는 사회적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노인학습자들은 단기간에 관계를 맺은 강사 및 동료보다는 평생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가족을 부담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속적인 지지제공원(이경남, 1995)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고, 지지의 영향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노인의 삶의 질에는 가족지지가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강사·동료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배우자 및 성인 자녀의 지지가 높을수록 삶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김정석, 김익기, 2000)와 일치한다. 반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보다는 전문가지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양이, 이연숙, 2017)와는 결과를 달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는데(권중돈, 2016; Ekwall et al., 2005), 본 연구를 통해서도 노인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지각하는 지지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한 생활환경 축소로 노인들의 사회관계는 가족 중심이 되므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이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죽음과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비공식적 관계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공식적 관계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노년기 심리적 안녕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관련 변인이 직·간접적으로 노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습동기는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기가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김영미, 한상훈, 2012; 김

진호, 2003; 변주성, 2009)와 학습동기가 학습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조광미, 2017; 한상길, 조운진, 2013; Nease, 2000)와 일맥상통한다. 노인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므로, 학습목표를 향해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학습동기가 노인학습자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노인학습자의 학습동기가 높아지면 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자신감과 유능감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의 결과로 몰입을 경험하여 학습에 더욱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둘째, 학습참여는 학습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참여와 학습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변주성, 2009; 임숙경, 조용하, 2008)의 결과와 같았다. 특히 학습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크기가 학습참여, 가족지지, 학습동기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라 학습참여는 학습성과를 높이는 결정적인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참여는 참여강도와, 학습시간, 학습비용의 참여수준과 학습에 참여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하게 되는 학습몰입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있어, 노인학습자가 학습에 적응하여 학습시간이나 강좌 수를 늘리고, 학습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도 학습참여를 통해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은 노인학습자의 삶의 질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학습자와 여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은영, 2015; 안은미, 허정무, 201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학습성과가 가족지지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습성과를 분석하는 일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도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학습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습자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학습관련 변인이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많이 경험하고 지각한 노인은 학습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하며, 학습참여와 학습성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안녕감 간에 학교라는 장(場)을 배경으로 여러 학습관련 변인이 매개한다는 연구(강현권, 2015)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학습참여와 학습몰입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경란, 박지혜, 2021)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지지원별로 학습 관련 변인들의 매개 경로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먼저 가족지지는 학습성과를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습자가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습을 통한 성과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강사·동료지지는 노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이기보다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참여정도가 높아지면서 학습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가 강사·동료지지와 노인학습자의 삶의 질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기관의 전문가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습 관련 효능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행복감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김양이, 이연숙, 2017)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나 여가활동 등이 그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도 사회적지지가 학습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은 학습욕구 뿐 아니라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노인을 학습을 통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자로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습자로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도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의 학교라는 환경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교류의 장(場)이 될 것이며, 여기서 사회적지지는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공동체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이를 통해 학습자는 소속감을 느끼고, 학습에서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유능감,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공식적인 관계가 줄어들면서 노인들의 사회관계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의 출가로 가족지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지지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 현장에서 강사나 동료의 지지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인의 학습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로서 본 연구는 그동안 학령기 청소년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던 학습과 관련된 주요 변인인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로써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여겼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여겨졌던 노인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 역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둘째, 노년기에 새롭게 학습을 시작한다는 것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노인들에게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노인은 가장 기본적인 지지로서 가족지지뿐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강사 및 동료지지를 통해서도 학습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노인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지지 제공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학교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우리나라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진입장벽을 낮추어 학습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우선 노인교육 기관에서 교육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교육을 더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인교육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여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노인학습자는 강사·동료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습참여가 높아지므로 효과적으로 사회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두거나 생애 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조은주, 이경화, 2015)과 같이 교육기관 내에서 강사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습자들 간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1년부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홍성우, 김종래, 2013) 평생학습과 학습자의 삶이 긴밀해지면서 학습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은 사회적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학습성과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노인의 학습참여부터 성과까지 학습 관련 컨설팅이나 학습 이력 관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인학습자들이 학

습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확장하며,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학습자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지지,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 삶의 질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습자의 사회적지지, 학습성과와 삶의 질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더불어 학습동기, 학습참여, 학습성과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지만 학습동기, 학습참여와 삶의 질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학습참여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후속 연구를 통해 노인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노인교육에 대한 더욱 풍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에 대한 학습 관련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으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에 의한 지지가 필요하며, 또 다른 학습 관련 변인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권 (2015).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자아실현

- 육구가 학업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43, 8-24.
<https://doi.org/10.17854/ffyc.2015.07.43.7>
- 고화숙 (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8(1), 27-38.
- 권중돈 (2016). 노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2), 5-22.
- 기영화 (200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지, 8(3), 89-110.
- 김길자 (2003).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노인 교실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령 (2012).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인자녀의 지지가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1-27.
- 김애련 (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이, 이연숙 (2017).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2(4), 217-238.
<https://doi.org/10.21194/kjgsw.72.4.201712.217>
- 김영미, 한상훈 (2012). 성인학습자의 자아개념, 참여동기 및 학습참여도와 평생학습성과의 구조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33(2), 123-143.
<https://doi.org/10.18612/cnujes.2012.33.2.123>
- 김은영 (2015). 여성회관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인식이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석,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준성 (2011). 성인학습자의 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순 (2015). 인지기능,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지지가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한 (2007).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성인교육학회지, 10(4), 1-24.
<https://doi.org/10.22955/ace.10.4.200711.1>
- 김진호 (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종, 전주성 (20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지지, 학습몰입도,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평생교육·HRD연구, 11(3), 117-132.
<https://doi.org/10.35637/klehrd.2015.11.3.005>
- 남기영 (2016). 대학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참여 지속 요인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경섭 (2015). 제대로 알고 있는 논문 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박재희 (2018). 교육서비스 품질과 성인학습자의 자발적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동료의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 (2015).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변주성 (2009). 평생교육기관 도자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요인구조분석. 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임복 (2007). 학습몰입의 구조: 척도, 성격, 조건, 관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연희 (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 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신경인 (2009).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식 (2014). 한국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비판적 노인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9(4), 269-290.
- 신미정, 정칠화, 우희정 (2020). 원격대학 성인 학습자의 학습자특성이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 학습참여 동기와 학습참여 저해요인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6(3), 177-204.
<https://doi.org/10.26857/JLLS.2020.8.16.3.177>
- 신성일, 김영희 (2013).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4(6), 3673-3690.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673>
- 신용주, 김혜수 (2015). 초로기 신중년을 위한 융합형 평생학습모델의 탐색. 한국성인교육학회지, 18(2), 151-168.
<https://doi.org/10.22955/ace.18.2.201505.151>
- 신은정 (2012). 성인학습자의 학습성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은미, 허정무 (2015). 중년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1(1), 91-111.
- 외교부. (2018). 성인 인적역량 현황과 평생학습 정책 사례. Paris: 주오이시디 대표부.
- 원영희, 한정란 (2012). 교육복지 관점에서 본 노년기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생교육학연구, 18(4), 239-263.
- 유은경, 설현수 (2015).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16(1), 155-184.
- 유혜엽, 기영화 (2008).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5(1), 47-66.
- 은화연 (2010). 평생교육참여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1995). 노인과 사회적지지. 부산여자대학교논문집, 23, 303-346.
- 이경란, 박지혜 (2021). 고령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 및 성공적노화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7(1), 147-172.
<https://doi.org/10.26857/JLLS.2021.2.17.1.147>
- 이기택 (2001). 정상학습프로그램이 몰입수준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일, 기영화 (2009).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5(1), 1-23.
- 이원숙 (1992). 사회적 망, 사회적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란 (2012).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활동적 노화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숙경, 조용하 (2008).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Andragogy Today*, 11(4), 53-76.
<https://doi.org/10.22955/ace.11.4.200811.53>
- 장암미, 안도희 (2013). 청소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학습동기, 학습전략 및 유능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7(4), 891-909.
- 전선영 (2013).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관특성이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 및 학습만족수준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제아, 김원경 (2014). 노인교육 관련 연구에 나타난 학습자로서의 노인. *평생학습사회*, 10(3), 1-25.
- 조광미 (2017). 성인여성학습자가 지각한 평생교육기관특성, 참여동기, 학습만족도 및 학습성과에 대한 구조관계 분석. 중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주, 이경화 (2015). 성인학습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커리어 미래 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HRD연구*, 17(4), 77-104.
<https://doi.org/10.18211/kjhrdq.2015.17.4.004>
- 조한익 (2010).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및 우울증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4(1), 161-181.
- 조해경 (2002).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명구, 성소연 (2012).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간의 구조관계. *청소년학연구*, 19(11), 357-373.
- 최운실 (1986). 성인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운실 (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HRD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개인적 자본 측면의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4(3), 381-419.
- 최일선 (2019). 노년기 학습과 지식의 맥락성. *한국노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9(1), 59-68.
- 최화강 (2012).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길, 조윤진 (2013). 지자체 여성회관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영향 요인 탐색. *Andragogy Today*, 16(3), 85-109.
<https://doi.org/10.22955/ace.16.3.201308.85>
- 한영미, 기영화 (2007). 평생교육기관 장기등록

-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 *HRD연구*, 3(1), 59-84.
- 한정란 (2001). *교육노년학: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서울: 학지사.
- 한정란 (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지영 (2019). 노인의 무형식 학습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종철, 김은경 (201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9(2), 139-169.
- 홍기형, 나향진 (2001). 중하위계층 노인의 학습 요구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홍성우, 김종래 (2013).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체계 및 사업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3), 375-40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hmed, W., Minnaert, A., van der Werf, G., & Kuyper, H. (2010).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early adolescents' achievement: The mediational roles of motivational beliefs and emo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 36-46.
<https://doi.org/10.1007/s10964-008-9367-7>
- Beder, H. (1999). *The outcomes and impact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 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Adult Learning and Literacy.
- Boshier, R. (1971). Motivational orientations of adult education participants: A factor analytic exploitation of Houle's typology. *Adult Education Journal*, 21(2), 3-26.
<https://doi.org/10.1177/07417136710210020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kwall, A. K., Sivberg, B., & Hallberg, I. R. (2005).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among older caregiv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1), 23-32.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260.x>
-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 Gutierrez, M., Tomas, J. M., Romero, I., & Barrica, J. M. (2017). Perceived social support, school engagement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Revista de Psicodidáctica*, 22(2), 111-117.
<https://doi.org/10.1016/j.psicoe.2017.05.001>
- Hopstock, L. A. (2008). Motivation and adult learning: A survey among hospital personnel attending a CPR course. *Resuscitation*, 76(3), 425-30.
<https://doi.org/10.1016/j.RESUSCITATION.2007.09.011>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Hyde, M., Wiggins, R. D., Higgs, R., & Blane, D. B. (2003). A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early old age: The theory,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a needs satisfaction model (CASP-19). *Aging & Mental Health*, 7(3),

- 186-194.
<https://doi.org/10.1080/1360786031000101157>
- Jackson, S. A., & Marsh, H.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1), 17-35.
<https://doi.org/10.1123/JSEP.18.1.17>
- Jarvis, P. (1985). *The sociology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London: Croom Helm.
- Kasworm, C. (1995, November). *Outcome assessment of adult undergraduates* [Conference present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AACE) Conference, Kansas City, MO.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2nd ed.). New York: Cambridge.
- Knowles, M. S. (1990).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 (4th ed.). Houston: Gulf Publishing Company.
- Lamdin, L., & Fugate, M. (1998). *Elderlearning: New frontier in an aging society*. Phoenix, AZ: Oryz Press.
- Lee, J., & Stankov, L. (2013). Higher-order structure of noncognitive constructs and prediction of PISA 2003 mathematics achievemen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119-130.
<https://doi.org/10.1016/j.lindif.2013.05.004>
- Loehlin, J. C. (2004). *Latent variable models: An introduction to factor, path,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4th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Nease, A. A. (2000). *Do motive matter? An examination of reason for attending training and their influence on training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ice.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Vaux, A. (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Y: Praeger Publishers.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Inc.
-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1), 78-89.
<https://doi.org/10.2307/2136504>
- Weyns, T., Colpin, H., De Laet, S., Engels, M., & Verschueren, K. (2018). Teacher support, peer acceptance, and engagement in the classroom: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in late child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6), 1139-1150.
<https://doi.org/10.1007/s10964-017-0774-5>

1 차원고접수 : 2021. 07. 09.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7.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arner's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Outcomes

Lee, Seungyeong

Choi, Jiyoung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veal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outcomes, and quality of life for elderly learners. For this purpose, social support (instructor-peer support and family support),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outcomes, and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for 354 learners aged 60 or older while enrolled in programs of public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Data were analyzed by SPSS 21 and AMOS 26.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structor-peer support had a positive direct impact on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Family support had a positive direct impact on learning outcomes and quality of life. Second, the learning motivation had a positive direct impact on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outcomes. Learning participation also had a positive direct impact on learning outcomes. Learning outcomes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ird,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outcomes had multipl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amily support influenced quality of life through learning outcomes. Instructor-peer support influenced quality of life through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outcomes as well as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outco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lderly learners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not only through family support as basic support, but also through instructor-peer support in the learning field. The study also provides the basis for seeking more specific strategie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promote learning for the elderly.

Keywords: elderly learners,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outcomes